

\*덕산이 용담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마주 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다. 용담이 "밤도 깊었는데 이제 가 봐야지" 했다. 덕산이 인사하고 주렴을 걸었는데 밖이 칠흑같았다. 고개를 돌려 "잠깐만요" 하자, 용담이 지촉(紙燭)에 불을 붙여 건넸다. 덕산이 받으려 하자 용담이 "혹 불어 불을 꺼버렸다. 이에 덕산이 흥연 깨달았다. 고마움에 깊이 절하자 용담은 "무슨 소식을 얻었느냐"고 물었다. 덕산은 "이후로는 천하 노화상(老和尚)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다음날 용담이 법상에 올라, "여기 한 사내가 있다. 이빨은 칼을 빼꼭 심어놓은 것 같고, 입은 피를 가득 뿜었는데, 웬만한 동물이에는 끄덕도 않을 것이다. 그가 이 다음에 우뚝한 산꼭대기에서 나의 도를 세울 것이다." 덕산은 이에 그동안 연구한 경전주석을 법당 앞에 쌓아놓고 불을 붙였다. 그는 불꽃은 더미를 하나 들고, "심오한 진리를 모두 논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태허에 던져진 터럭 하나요, 세상의 이치와 기미에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짙은 꿀짜기에 던져진 한 방울 물일뿐"이라고 외쳤다. "나 해가 말한다. 집을 떠나기 전 덕산은 분노와 울분에 차 있었다. '내 이제 남방으로 가서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외

### 한형조 무문관 탐방

45

#### 용담의 촛불 ①

外面黑。潭乃點紙燭度。山巖接。潭便吹滅。山於此忽然有省。便作禮。潭云。子兒箇甚道理。山云。某甲從今日去。不疑天下老和尚舌頭也。至明日。龍潭院堂云。可中有箇漢。牙如劍樹。口似血盆。一棒打不回頭。他時異日。向孤峰頂上。立高道在。山遂取紙抄於法堂前。將一炬火提起來。竊竊玄辯。若一毫致於太虛。竭世福機。似一滿投於巨壑。將流沙便燒。於是灑然。

無門曰。德山未出關時。心憤憤口。得得來南方。要滅却教外別傳之旨。及到龍潭路上。問蔡子買點心。蔡云。大德車內是甚麼文字。山云。金剛經抄抄。蔡云。只如中道。過去心不可得。現在心不可得。未來心不可得。大德要點那箇心。德山被者一問。直得口似。然雖如是。未向向蔡子句下死却。遂問蔡子。近處有甚宗師。蔡云。五里外有龍潭和尚。及到龍潭。納盡取。可謂是前言不應後語。龍潭大似憐兒不覺。見他有些子火種。冷地將惡水澆頭。一澆洗。冷地將惡水澆頭。一場好笑。

錫口。聞名不如見面。見面不如聞名。雖然教得鼻孔。爭奈賊去眼睛。

용담승신(龍潭崇信)은 8세기말 9세기초의 인물이다. 육조혜능의 한 제자인 청원행사(靑原行思)에서 석두희천(石頭希遷)과 천황도오(天皇道悟)로 이어지는 계보 위에 있다.



그림·이준서

## 진리 통달했어도 太虛의 터럭

### "즉각 파지하라 생각에 잠기면 멀어진다"

치는 자들의 말을 꾸으리라. 예주(澤州)로 가는 길 주막에 들렀다. 짐승을 주문하자 노파가 "바람 속에 든게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덕산은 으쓱하며 말했다. "(금강경)의 주석이오." 노파가 물었다. "그 경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지금의 마음도 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짐승을 하시렵니까?" 덕산은 이 질문에 말문이 딱 막혔다. 덕산은 그러나 기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 노파에게 "근처에 어디 큰 스님이 계시니까?"라고 물으니, "5리 남쪽에 용담화상이 있지요"라는 대답이었다. 용담에 이르러 덕산은 모든 재산을 털고 주저앉았다.

용담은 아이를 너무 아낀 나머지 주책을 부린 애비같다. 덕산에게 불씨가 있는 것을 알고 훌쩍 흉탕물을 끼얹어 꺼버렸다. 괜히 벌인 코메디라거나 할까.

\*승하여 가로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나, 따른 얼굴보다 목소리만 듣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붓구멍은 얻었는지 모르나, 어쨌고, 눈동자는 멀고 말았으니.

久處龍潭  
龍潭。因德山請益。抵夜。潭云。夜深子何不下去。山遂珍重。揭簾而出。見外面黑。却回云。

떡집을 하는 아이였던 그는 매일 천황도오에게 떡을 공양하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떡을 갖다줄 때마다 천황이 그에게 하나를 남겨 도로 주는 것이었다. 기이하게 생각했던 그가 까닭을 물었다. "어허, 이놈, 네가 가져온 것을 내게 돌려주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막연하지만 알지 못할 서늘한 바람쫄기가 소년의 마음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출가를 결심한다. 천황이 말했다. "네가 지나온 복선(福善)에다 나를 믿게 되었으니 승신(崇信)이라 하자." 천황을 모시던 어느날, 용담이 이렇게 물었다. "제가 여기 온 뒤로 아직껏 마음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 없습니까." "무슨 말이나, 내가 여기 온 뒤로 나는 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용담은 고개를 가웃 거렸다. "무엇을 어떻게요." "있었느냐. 내가 차를 끓여오면 받아 마셨고, 밥을 갖다 주면 차를 끓여오면 받아 마셨고, 밥을 갖다 주면 고개를 숙였다." 용담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을 굴리자 천황의 호령이 떨어졌다. "즉각 파지해야라 생각에 잠기면 멀어진다." 이 말이 문득 깨달음이 왔다. "그 비밀을 어떻게 지키리까." 본래의 성품에 맡겨 노닐고, 인연에 따르되 걸림이 없어야 한다. 일상적 사 고습관을 버린 그 자리에 비밀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말정도의 정경은 명상 수행중에 생기는 열망, 분노, 불안, 불신 등의 감정을 바르게 보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 공동체를 찾아온 한 젊은이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열심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곳에 들어왔지만 점차 계엄을 파우고 술과 담배까지도 가까이 했다. 결국 그는 다른 수행자들의 미움을 사게되고 공동체에서 쫓겨났다. 이때 공동체 원장이 그를 다시 공동체에서 삼도복 베풀었다. 다른 수행자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이유를 묻자 원장은, "그

## "감정의 파도를 타자"

말정도의 정경은 명상 수행중에 생기는 열망, 분노, 불안, 불신 등의 감정을 바르게 보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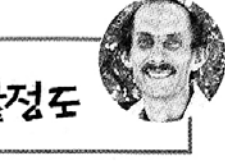
수행 공동체를 찾아온 한 젊은이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열심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곳에 들어왔지만 점차 계엄을 파우고 술과 담배까지도 가까이 했다. 결국 그는 다른 수행자들의 미움을 사게되고 공동체에서 쫓겨났다. 이때 공동체 원장이 그를 다시 공동체에서 삼도복 베풀었다. 다른 수행자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이유를 묻자 원장은, "그

### 정견 ①

는 제법과정에서 생기는 공광이와 같다. 그는 우리에게 인내와 자비의 진정된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상중에 열망, 분노, 불안, 불신, 두려움 등의 마음의 모습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몸과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자극을 주는지, 맛 어떤지를 주의깊게 관해야 한다. 도망치거나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것들의 본성을 보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때까지 보고만 있어야 한다. 그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물론 양배

### 책·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가 초원을 향하듯이 계속 찾아온다. 초원과 같이 그냥 받아들여라. 술한 감정에 마음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을 버리는 것으로 족하다. 무아(無我)만이 그 감정들에 대한 유일한 저항일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은 시공(時空)

###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지혜·자비와 관계를 맺자"

으로 한정된 우주의 일부이다. 우리의 경험들은 평온함과 거리가 먼 어떤 생각과 느낌들로 채워져 있다. 그 생각과 느낌은 의식에만 있는 가시적 환상일 뿐이다. 이 환상은 우리를 가두고 욕망으로 얽어매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우리는 엄메임에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존재하는 까닭과 자제적인 미(美)를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존재물들을 가까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침묵과 인식이 정제(精製)되고 깊어질 때, 우리는 그것들에게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우리의 본별심과 아집을 허물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아찬차스님에게 명상 지도를 처음 받았을 때 일이다. 스님은 "아직까지 탐심을 가지고 있구나"고 말했다. "예" "고통과 분노도 가지고 있느냐?" "예" "여전히 망상도 가졌구나" 그때 나는 무엇인가를 느끼며 "아"하고 탄성을 토하자, 스님은 "좋아, 계속해"라며 북돋워 주었다.

우리는 명상으로 특별한 마음의 경지를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 마음은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명상은 매순간 변화하는 마음의 한 단면을 깊이 이해하고 명확히 보게 할 뿐이다.

L.A 한 거리의 벽에 붙여져 있던

벽보의 한 문구가 생각난다. 노란색 옷을 입고 긴 턱수염을 기른 구루(guru·스승)가 한 발을 접은 채로 학처럼 끈기 서있는 삽화가 그려진 벽보에는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파도 타는 것은 배울 수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그 문구는 보는 듯하고 느끼는 감정의 변화로 가득찬 이 세상에서 정신적인 명상 수행의 중요성을 한 마디로 표현했다.

감각을 돌보고 인식을 닦는 마음챙김의 수행인 명상이 끝없이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를 능숙하게 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수행으로 우리는 모든 유·무형의 존재물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명상중에 스며드는 술한 감정들과 담담히 함께 하며 보고 배우는 수행의 영혼이 바로 전사의 영혼이다. 반면 우리는 대부분 은총이나 저주르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불평을 토로한다. 우리도 전사의 영혼을 지녀야 한다. 용기로써 용하며 배워야 한다.

배움은 아주 단순한 과정 속에서 얻어진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보고, 앎고, 길고, 수행하고, 관심을 끌리고, 집중하고, 발견하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면 된다. 또 술걸, 몸, 감정, 마음 등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지혜와 자비, 이해를 가지고 그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각하면 된다. 때론 어렵게 느껴졌지만 복잡한 것은 아니다.

번역=오종욱 기자

##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 불교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시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인다. 또 한방병원 건물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시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인다. 또 한방병원 건물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가 격: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김창수: 033-07-172508

##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시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053)655-2227

## 범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며 불치병을 앓아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시초 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

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목

###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